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경제일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

○ 북한은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연합뉴스. 2017.07.04.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발사 성공" 발표(종합)

통일부, 적십자회담 검토 및 베를린 구상의 이행 착수

○ 통일부는 7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제안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음. 이에 조만간 적십자회담 등 각종 회담 제안도 할 것으로 전망됨.

-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간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와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음. 이 부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과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실무회담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 회담 제안에 대해 "구체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음. 그러면서 적대행위로 지적된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하였음.

뉴스1. 2017.07.07. 통일부 "적십자회담 검토…'베를린 구상' 이행 착수".

미국 정부, 미국 내 대북 거래 은행의 거래 자금 압류 착수

○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8개 미 대형은행의 수백만 달러 압류에 착수하였다고 블룸버그통신, 더힐이 보도하였음.

○ 미국 법무부는 2009년부터 북한 관련 기업들과 미 대형 은행들이 7억 달러 이상의 "금지된" 거래를 하였다고 언급하였음. 8개 대형은행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뉴욕멜론은행, 시티그룹, 도이체방크, HSBC 홀딩스, JP모건체이스, 스탠다드차타드 그룹, 웰스파고 등이 포함됨.

- 일부 은행들은 단둥즈청금속회사(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Co)와 다른 4개의 위장 회사들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음. 미 연방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거래를 통하여 제재를 피하려고 하였다고 밝혔음. 이들의 거래는 북한의 군대와 무기거래 등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연방검찰은 판단하고 있음.

뉴시스. 2017.07.07. 美 법무부, 北 기업들과 거래 8개 대형은행 수백만 달러 압류

북한, FAO 총회에서 대북 제재 시행 비판

○ FAO 총회 연설을 통하여 북한 대표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비판하였음.

- 7월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장은 7월 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FAO 총회 제40차 회의 전원회의 연설에서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의 협조가 회원국의 지속적인 농업발전과 빈궁 청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방해를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행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는 "아직 매개 나라들의 농업생산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해 많은 사람 속에서 기아와 영양실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개발목표를 달성하자면 무엇보다도 평화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또한 "개발도상국의 자주적 지향을 힘으로 막아보려는 일부 특정 국가들의 강권정책으로 국가 주권은 물론 인민들의 생존권과 농업을 비롯한 경제발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주장하였음.

뉴스1. 2017.07.07. 北대표, FAO 총회서 '대북 제재 비판' 연설 "반인륜적"

문재인 대통령, 비인도적 성격의 원유 대북 공급 제한 언급

○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을 향해 '인도적 지원'이라는 당근과 함께 '원유 공급 제한'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문 대통령은 7월 8일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영유아의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어 "2017년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

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며 국제 사회의 지원을 촉구하였음. 반면,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차원이 아니라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이 제한돼야 한다"는 정부의 고강도 제재 언급하였음.

동아일보. 2017.07.10. 문재인 정부 "北에 비인도적 원유공급 제한돼야"… 中 우회압박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북핵 상황 진전의 필요성 언급

○ 7월 14일 통일부는 2016년 2월 중단된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북핵 상황이 진전돼야 한다고 밝혔음.

-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조성 과정에서 가지는 가치를 감안할 때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재개를 위하여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북핵 상황에 진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연합뉴스. 2017.07.14. 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위하여선 북핵상황 진전 있어야"

북한의 2016년도 경제 성장률 3.9%로 추정

○ 북한 경제가 2016년 국제 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최고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국은행은 2016년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7월 21일 밝혔음.

○ 2015년 -1.1% 성장에서 반등하며 1999년 6.1% 이래 최고 성장세를 기록하였음. 이는 2016년 남한의 경제성장률 2.8%보다도 높았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소득 격차는 21.9배로 전년(22.2배)에서 축소되었음.

- 2016년 북한 경제에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22.3% 성장하졌음. 전년엔 -12.7%였음. 광공업은 6.2% 증가하였음. 광업은 석탄과 아연광석 등의 생산이 늘어서 8.4% 성장하였으며, 전년은 -2.6%였음.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제조업도 4.8% 성장하였으며, 전년에는 -3.4%였음. 중화학공업은 1차 금속제품과 화학제품 등이 늘어서 6.7% 증가했고 경공업은 섬유와 의복, 가죽 등 증가로 1.1% 성장하였음. 농림어업도 2.5% 성장하였음. 건설업은 1.2%, 서비스업은 0.6% 성장했지만, 전년 4.8%와 0.8%에는 못 미쳤다.

- 산업구조에서 광공업이 33.2%로 가장 컸음. 이 가운데 제조업이 20.6%, 광업이 12.6%로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늘었음. 서비스업은 1.1%포인트 하락한 31.1%로 광공업과 격차가 커졌음. 농림어업은 21.7%로 0.1%포인트 상승하였음. 전기가스수도업은 5.2%로 0.7%포인트나 뛰었음. 건설업은 8.8%로 0.2%포인트 하락하였음.

○ 국제 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 대외교역은 65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음. 2015년도에는 북한 교역규모가 17.9% 감소하였음.

- 2016년 북한 수출은 28억 2,000만 달러로 4.6% 늘었고 수입은 37억 3,000만 달러로 4.8% 증가하였음.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따라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크게 강화된 상황에서 이례적 결과임.
  • 2016년 북한에서 수산물 생산을 강조하며 어류 등 동물성 생산품 수출이 74.0% 뛰었음.

연합뉴스. 2017.07.21. 최악 제재에도…北 2016년 3.9%성장 추정, 南 넘어 17년래 최고

미국 국무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 다음 달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완전히 금지될 예정임.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모든 미국 시민의 북한여행 전면 금지 조치를 승인하였다고 헤더 노어트 대변인이 전하였음. 미국 국무부의 북한여행 금지 조치는 다음 주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 게재 시점으로부터 한 달 후 발효될 예정임.
- 다만 인도적 목적의 방문 등 특수한 목적의 북한 방문의 경우 시효가 제한된 특별여권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연합뉴스. 2017.07.22. 美, 北여행 전면금지…웜비어 사망 결정적 계기(종합)

미국 하원, '북한 원유 수입 봉쇄' 등 대북 제재법안 처리

○ 미국 하원은 7월 25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일괄 처리하였음.

○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법안을 표결 처리하였음.

- 북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음.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음.
-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 및 기업, 개인 등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했고, 북한 당국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북한산 물품의 미국 수입도 금지하였음.
- 법안은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90일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음. 만일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의해 북한은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게 됨.
  • 이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됨.

연합뉴스. 2017.07.26. 美하원 '北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법안 처리 ;
조선일보. 2017.07.26. 미 하원, '北 원유·석유 제품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안 가결

북한, 연간 4,000-4,500명 정도의 서양 관광객 유치

○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북한은 연간 4,000-4,500명 정도의 서양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여행사'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는 26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95%는 중국인이며, 중국인을 제외한 서양 관광객은 현재 연간 4,000-4,500명 정도에 달한다고 언급하였음. 이는 지난 2012년 기록한 연간 6,000명에 비하여 줄어든 것이라고 전하였음.
- 고려여행사 서양인 고객의 20%는 미국과 영국 국적이며 나머지 80%는 북유럽과 서유럽, 호주, 캐나다 출신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 출신도 있음.

연합뉴스. 2017.07.26. 北, 서양 관광객 연간 4천-4천500명 정도 유치

미국 상원, 북한·러시아·이란 제재안 가결

○ 미 상원이 7월 27일 북한·러시아·이란 제재안이 가결되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됨.

○ AFP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음. 7월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되었음.'

-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은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로 묶은 것임. 대북 제재 법안은 상원에,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은 하원예 계류중이었는데 미 의회는 8월 휴회기 전 신속 처리를 위하여 '패키지 법안' 처리를 결정하였음.
- 이번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 것으로, 원유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의 제재 조치도 담겨 있음.

뉴스1. 2017.07.28. 美상원, 북한·러·이란 제재안 '98대2' 압도적 가결 (종합)

북한, 화성-14 2차 발사 성공 주장

○ 북한은 "7월 28일 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화성-14형은 최대정점고도 3,724.9㎞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를 47분12초 간

비행하여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월 29일에 보도하였음.

연합뉴스. 2017.07.29. 北 "화성-14 2차발사 성공"…김정은 "ICBM 기습발사 능력과시"(종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도출 필요성 언급

○ 7월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결의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하였음.

- 강 장관은 7월 29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17층 회의실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책 협의를 위하여 열린 간부회의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포함,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협의하고 우방국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하였음. 강 장관은 "이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실시하면서도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음.

연합뉴스. 2017.07.29. 강경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 강력한 대북 제재 조속 도출돼야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사드 추가 배치 지시

○ 남북 대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단호한 대응을 북한 정권도 실감하도록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음. 그러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하였음.

한국경제. 2017.07.30. '레드라인' 밟은 북한…문재인 대통령 "사드 추가 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러시아·이란제재법 서명 및 발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2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였음. 7월 27일 상원 의회에서 가결된 지 6일 만으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 발효되었음.

-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도록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또 북한 노동자의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이 담겼음.

연합뉴스. 2017.08.03. '北·러·이란제재법' 발효…김정은 돈줄 죄기 강화(종합)

미국 국무부, 9월 1일부터 북한여행금지 발효

○ 미국 정부가 9월 1일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한다고 8월 2일 발표하였음.

- 미 국무부는 9월 1일부터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입국 금지 조처가 발효된다고 이날 관보에 게재하였음. 국무부는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미국인은 그 전에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연합뉴스. 2017.08.03. 美 '北여행금지' 9월1일 발효…"미국인, 그전에 北 떠나야"

외교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조치로 10억 달러 상당의 외화 수입이 차단될 것으로 추정

○ 외교부는 8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에 대해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 10억-10억5000만 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외교부는 "결의에는 기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는 강력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그러면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 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하였음.

매일경제. 2017.08.06. 외교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北 외화수입 10억 달러 차단 효과" ;
매일경제. 2017.08.06. 유엔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북한 연수출 `3분의1` 차단(종합)

남북 경협기업 지원 절차 착수 예정

○ 정부가 남북 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곧 착수할 예정임.

○ 8월 7일 정부 당국자는 "남북 경협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이번 주 시작할 예정"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야 할지 등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 통일부는 5·24조치 피해 기업이 약 350여 곳,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 기업이 약 50여 곳 등 총 400곳 안팎의 기업이 일단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금강산 관광을 주관한 현대아산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음.

연합뉴스. 2017.08.07. 남북 경협기업 지원 본격화…금주 부처간 협의 착수

북한 내 공식 운영 시장은 468개로 확인

○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이 5개월 만에 32개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하였음.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북한 지역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공식 시장은 현재 468개로 파악됐다고 이 방송은 전하였음. 2017년 3월에 확인된 시장의 수는 436개로, 5개월 새 시장이 32개나 늘어났음.
- 방송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새로 건설되거나 확장·보수된 공식 시장은 100개가 넘는다고 밝혔음. 자유아시아방송은 멜빈 연구원이 확인한 시장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으로, 길거리 장마당이나 임시 시장 등 비공식 시장까지 합치면 시장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음.

연합뉴스. 2017.08.11. "北 공식 시장 468개…5개월 새 32개 증가"

미국 백악관, 트럼프·시진핑의 북한 도발 중단에 관한 합의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만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고 밝혔음.

-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시 주석과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며 이 같은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하였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춰야만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또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최신 결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대 조치"임에도 의견을 한데 모았다고 덧붙였음.

뉴스1. 2017.08.12. 백악관 "트럼프 · 시진핑, 北 도발 중단하라는데 합의"(종합)

북한, 2017년 중국 연변에 인력 3만 명 파견 추진

○ 북한이 중국 연변지역에 2017년 안에 3만 명의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음.

○ 북한은 이를 위하여 함경북도에 인력모집 회사까지 설립하고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에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였음.

- 한 소식통은 "2016년 말 함경북도는 더 많은 인력을 중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청진시 청암구역 역전동에 '청암연합무역'이라는 회사를 세웠다"며 "함경북도는 이를 통하여 한 달에 중국 인민폐 300위안을 월급으로 받는다는 조건에서 5년 계약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 그러면서 "함경북도는 2017년 중으로 중국 파견 인력을 3만 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나와있는 북한의 한 간부는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며 "이들 중 80%인 5000여명이 함경북도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른 도에서 채용된 인력"이라고 말하였음.
- 중국 심양시에 파견된 또 다른 북한 소식통은 "현재 중국 전역에 파견된 우리(북한) 인력은 3만 명 정도"라며 "인력파견 말고도 중국산 담뱃잎과 합성수지, 수산물, 피복류 등 원자재를 (북한에) 가져다 임가공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그러면서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 월급은 1인당 한 달 인민폐 2,400위안으로 매달 첫 주 전부 현금으로 인력관리 책임자들에게 전달된다"며 "그중 노동자들에게 직접 차례지는 몫은 중국 인민폐 300위안이 전부"라고 설명하였음.

뉴스1. 2017.08.17. "北, 2017년 중국 연변에 인력 3만 명 파견 추진"-RFA

미국 정부, 중국·러시아의 기관 및 개인 제재 조치 착수

○ 미국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하여 세 번째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음.

○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8월 22일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 10곳 및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였음. 미국 재무부는 이들 기관과 개인은 북핵·미사일 개발 관련자 지원, 북한과 에너지 자원 거래, 북한 인력 수출 용인,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의 미국 및 세계 금융시스템 접근 지원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하였음.

- 므누신 장관은 "대북 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이번 제재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북한의 석탄·철 등 수출 봉쇄 결의안과는 별개의 조치임.

세계일보. 2017.08.23. 美, 中·러 기관·개인 독자 제재…"北 지원하면 대가 치를 것"

중국 상무부, 대북 합작기업의 설립·투자 확대 금지 조치 시행

○ 8월 25일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북한의 중국 내 외자기업 설립 및 투자 확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2017년 제47호 공고'를 발표하였음.

연합뉴스. 2017.08.26. 중국 상무부, 북한과 합작기업 설립·투자 확대 금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

○ 북한은 7월 29일 오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하였으며,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올해 들어 13번째 발사한 미사일로 비행거리가 2,700여 ㎞로 가장 멀리 날아갔음.

국민일보. 2017.08.29. 정상각도 발사 2700여㎞ 비행… '괌 타격' 능력 과시

통일부, 대북 제재 및 대화의 병행 입장 표명

○ 통일부는 7월 29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하였음.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하여 "제재는 제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화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하였음.

-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며 현재 엄중한 안보상황을 극복해나갈 것"이라며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남북관계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하겠다"고 설명하였음.

이데일리. 2017.08.30. 통일부 "北 제재와 대화는 병행..대북 대화제의 유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규탄 성명 채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월 29일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전날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의장성명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제재 방법 중 결의안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주로 채택해온 언론성명보다 격이 높은 것임.

○ 안전보장이사회는 성명을 통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행동이 단순히 역내에 위협일 뿐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한다"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하였음.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어 "대화를 통하여 평화롭고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였음.

조선일보. 2017.08.31. 유엔, 北 규탄 의장성명 만장일치 채택

북한,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 및 핵무력 완성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주장

○ 북한이 9월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하여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후 "조선 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3일 12시 우리 나라 북부핵시험장에서 ICBM장착용 수소탄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

뉴스1. 2017.09.03. 北 "ICBM 장착용 수소탄시험 완전 성공…핵무력 완성단계"(종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시행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월 12일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원유 및 정제유의 대북 수출 제한이 처음 포함되었음.

- 2016년 3월 대북 항공유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만 원유 및 정제유를 제재 항목에 포함시키기는 처음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유류 수입을 30% 가량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새 결의에는 미국의 초안에 포함됐던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 조치가 빠진 대신 과거 12개월 수준으로 원유 수출량을 동결하였음. 북한은 연간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함. 새 대북 제재 결의는 정제유의 대북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했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출을 금지하였음.

- 북한 국적 노동자 고용과 관련하며, 각 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허락을 받도록 했으며, 결의안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적용에서 제외하였음.

- 이 밖에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강제검색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박이 금지 화물을 싣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보가 있을 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미국이 작성한 초안대로 확정되었음.

국민일보. 2017.09.12. 신속했지만 부족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유류 30% 차단

EU의 대북 압박 강화 및 유엔 새 제재안 이행, 추가 독자 제재안 마련 입장 표명

○ 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9월 12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날 채택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한편, EU 차원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해 나가며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모게리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항상 했던 것처럼 당장 유엔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이라면서 "경제제재의 효율성을 최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국제 사회 파트너들에도 똑같이 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모게리니 대표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은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대화를 위한 길을 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을 통하여서만 달성할 수 있다"며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음.

연합뉴스. 2017.09.13. EU "대북압박 강화…유엔 새 제재안 이행 · 추가 독자 제재 마련"(종합)

통일부, 북한 내 유가의 상승세

○ 통일부는 9월 26일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내 유가가 상승세에 있다고 밝혔음.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 이후 유가는 상승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8월 중순 이후 급등세를 보였고 휘발유는 연초에 비하여 3배로 큰 폭으로 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통일부 당국자는 "쌀값과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면서도 "무역과 물가, 민생에 대한 영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였음.

연합뉴스. 2017.09.26. 통일부 "北유가 상승세…연초대비 휘발유가격 3배로 뛰어"

중국 정부, 자국 내 북한 설립 기업 120일내 폐쇄 통보

○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설립한 북한 기업들을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하였음.

○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음. 이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

- 상무부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통과된 9월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 9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일보. 2017.09.28. 中, 자국 내 北 설립 기업 120일내 폐쇄 통보

◆ 대외무역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석탄 금수 조치 시행에도 대북 압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

○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구매력이 국제 사회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음.

○ 7월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5월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현황을 분석하여 "중국이 2017년 2월 김정남 피살 직후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음에도 북한의 구매력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도하였음.

- 석탄 수출이 막히면 북한의 중국 제품 구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그러나 중국 세관의 5월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국 월간 수입액은 3-5월 연속 20억 위안(약 3,381억 원)을 넘기며 금수 조치 전인 1월 수입액(약 16억 위안)을 초과하였음. 품목별로는 북한의 중국산 연료 수입이 줄어든 대신 자동차, 식용유, 선박용 엔진, 오렌지 토마토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북한의 구매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석하였음.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북한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 석탄 수출을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중국 제품을 계속 수입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중국이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으나, 중국 세관의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은 선박들이 비밀리에 석탄을 날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하였음.

한국경제. 2017.07.10. 중국, 북한산 석탄 금수에도 북한 자금줄 압박 효과 미미

러시아, 2017년 대북 석유 수출 2016년 대비 200% 이상 증가

○ 2017년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액은 약 230만 달러를 기록해 약 74만 달러가 수출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러시아 연방세관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음.

- 미국의소리 방송은 "러시아의 석유류 대북수출량은 2017년 4월까지 약 4,100톤으로 2016년 1,600톤보다 약 150% 증가하였다"며 "이 기간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석유제품은 96%가 '원유를 제외한 석유'였다"고 밝혔음.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 품목은 중유, 모터유, 유압용 기름, 윤활유 등임.

연합뉴스. 2017.07.11. 러시아, 2017년 대북석유수출 전년대비 200% 이상↑

2016년도 북한의 무역 규모, 2015년 대비 4.7% 증가

○ 유엔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2016년 북한의 무역 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7월 21일 코트라가 발표한 '2016년 북한 대외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2016년 무역 규모는 65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음.

- 2010-2014년 5년 간 꾸준히 늘던 북한 무역 규모는 2015년 감소하였다가 2016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2016년은 3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비군사적 제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역 규모 증가는 이례적임.

○ 2016년 북한의 수출 규모는 28억 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4.6% 증가했고, 수입도 전년보다 4.8% 늘어난 37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무역 적자 규모는 9억 1,000만 달러로 역시 전년보다 5.4% 확대되었음.

- 석탄, 아연 등 광물성 생산품 수출이 늘고 의류, 차량, 식용과실, 견과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체 교역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은 12.5%의 증가율을 보였음. 석탄은 제재품목 중 하나이지만 민수용에 한해 교역이 허용되고 있음.

○ 북한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으로 2016년 대 중국 무역 규모는 60억 5,000만 달러(수출 26억 3,000만 달러, 수입 34억 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1% 증가하였음.

- 무역적자도 7억 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6.1% 늘었음. 북중 무역은 북한 전체 대외무역의 92.5%를 차지하였음. 중국에 이어 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이 교역국 순위 2-5위에 이름을 올렸음. 일본은 자체 대북교역 제재로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없다.
-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은 석탄 등 광물성 연료(11억 9,000만 달러)와 의류(7억 3,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68.1%를 차지하였음. 광물성 연료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음.
  - 큰 폭으로 수출이 늘어난 품목으로는 어류 갑각류가 있음. 이 품목의 수출액은 2억 달러로 전년보다 74.9% 증가하였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서 6.9%로 확대되었음.

○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로 4억 4,000만 달러가 수입되었으며, 이들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임.

- 전기기기, 보일러·기계류가 각각 3억 3,000만 달러, 2억 8,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음. 차량 및 부품은 2억 6,000만 달러가 수입돼 전년 대비 증가율이 31.7%에 달하였음. 코트라는 평양시 현대화 공사로 화물차 등의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음.

연합뉴스. 2017.07.21. 유엔 제재에도 북한 무역 규모 늘어…2016년 4.7%↑

중국 상무부, 8월 15일부터 북한산 광물·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 시행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하여 8월 1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과 광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음.

○ 8월 14일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1호 이행을 위한 2017 세관 공고 제40호'라는 제목 글에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관련 제품 수입을 15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전하였음.

- 상무부는 금지 대상에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등이라고 전하였음. 하지만 시행일(8월 15일) 이전에 중국 항구로 운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키로 하였다고 덧붙였음.

중앙일보. 2017.08.14. 中, 15일부터 北 광물·수산물 수입 전면금지…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조치

2017년 상반기 북한-러시아 교역 규모, 2016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

○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속에서도 2017년 상반기 러시아 대북 석유제품 수출이 2016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하였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하였음.

- 8월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러시아 연방 세관의 통계를 인용하며, 2017년 상반기까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가솔린, 디젤 연료 등 석유 제품이 4,304톤, 240만 달러 상당이라고 전하였음. 전년 동기 수입은 2,171톤, 98만 달러(한화 11억2000만원)였음.
- 산케이신문은 러시아가 경제 분야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해왔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8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때에도 석유 관련 제품의 무역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였다고 보도하였음.

중앙일보. 2017.08.21.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러시아, 北교역 규모 2016년대비 두배 증가

필리핀, 대북 무역 중단 조치 시행

○ 필리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북한과 모든 무역관계를 단절하였다고 밝혔음.

○ 필리핀 GMA방송 등에 따르면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장관은 9월 8일 "필리핀이 북한과 모든 무역관계를 중단했음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음. 카예타노 장관은 "필리핀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제재도 포함됨. 안전보장이사회(결의)는 아주 명백하다"고 덧붙였음.

- 필리핀은 북한의 5위 무역 상대국으로 알려져 있음. 2017년 1-6월 양국 무역액은 총 2880만 달러에 달한다고 앞서 코트라(KOTRA)가 밝혔음.

뉴스1. 2017.09.09. 필리핀, 北과 무역관계 중단…"컴퓨터칩 수출 금지"

중국 상무부, 대북 석유제품 수출 및 섬유제품 수입의 금지 및 제한 예정

○ 9월 23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과 섬유제품 수입 제한을 진행할 예정임.

- 중국 상무부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하며, 북한에 대한 톤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
- 중국 상무부는 "공고일 0시(23일)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음.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수출 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하였음.
  - 새 대북 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 배럴(6만 톤)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 배럴(24만 톤)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음.

한국경제. 2017.09.23. 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 · 섬유제품 수입 금지 · 제한"

◆ 기타

유엔 경제사회국, 북한 주민의 기대수명은 71.9세로 추정

○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이 최근 집계한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남한과 크게 차이난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하였음.

○ 유엔 경제사회국(UNDESA)은 최근 발표한 '세계인구전망 2017 개정판'에 따르면, 현재 북한 주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71.9세임. 이는 세계 평균 기대수명과 같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 10.5년 짧고 주변국인 중국과 비교하면 4.6년, 일본보다는 12년이나 짧은 수치임.

- 북한의 인구는 현재 2,549만 명으로 25-59세가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합뉴스. 2017.07.11. 유엔 "北주민 기대수명 71.9세…南보다 10년 짧아".

미국 민간연구소, 북한 인구는 2,550만 명으로 추정

○ 북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30년부터는 인구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회국(PRB)이 공개한 세계인구자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2017년 현재 2,550만 명으로 2016년보다 약 40만 명 증가했으며, 2050년에는 2,6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

- 하지만 PRB는 북한의 인구증가 추세가 2030년을 정점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PRB의 피터 골드스타인 대변인은 2013년부터 매년 10만 명 이상씩 증가해온 북한의 인구는 2030년 이후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며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인구증가 속도도 느려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연합뉴스. 2017.08.16. 美 민간연구소 "北인구 2천550만 명…2030년부터 증가세 둔화"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북한 내 가뭄으로 인하여 일부 작물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17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북한의 일부 작물 수확량이 2016년과 비교하여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알려졌음.

○ 미국의소리 방송은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를 인용하여, 2017년 1월 이래 북한 내 강수량이 평년보다 30-80% 가량 감소하여 북한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주요 농경지가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도하였음.

- 앞서 유엔은 2017년 6월 북한당국과 국제적십자사, 국제 대북지원기구 관계자들과 함께 함경남도에 공동조사단을 파견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한 바 있음. 조사 결과, 최근 가뭄으로 북한 농경지 5만 ha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 지역 일부 농작물의 수확량이 2016년과 비교하여 30-50%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또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물 공급과 관개시설의 주요 원천인 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우 낮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럭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음.

뉴스1. 2017.07.04. 유엔 "北, 가뭄으로 일부 작물 수확량 30-50% 감소할 듯".

유엔, 북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지원금 계획

○ 북한이 2017년도에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엔은 '긴급대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 '긴급대응 지원금'은 인도주의 구호가 시급한 나라에 제공되는 자금으로 2016년 함경북도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당시 유엔은 510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7월 12일 미국의소리 방송이 입수한 유엔 합동조사단 북한 가뭄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함경남도 전체 재배 면적의 16%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음.

- 특히, 강령군과 장연군 지역의 농경지는 40% 이상, 함경북도 장풍군은 전체 재배 면적의 59%가 피해를 입었음. 또한 남포시의 경우 옥수수보다는 벼가 더 큰 피해를 입었고, 평안남북도는 옥수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음.
- 유엔 조사단은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2015년 가뭄 피해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유엔 조사단은 가뭄 등의 영향으로 황해북도와 평안남북도 지역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 상태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에 긴급대응 지원금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뉴스1. 2017.07.12. 북한, 2017년도 가뭄 피해 심각…유엔 '긴급 지원금' 계획

WFP, 2017년 6월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2017년도의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

○ WFP가 지난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가 2017년 들어 최저 수준이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하였음.

○ WFP는 7월 19일 발표한 '6월 북한 국가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 탁아소 영유아와 임산부, 수유모 등 45만 8,000여 명에게 영양 강화 식품 1,335톤을 지원하였다고 밝혔음.

- 이 기간 탁아소 영유아 어린이는 1인당 하루에 영양 강화 식품 66g과 영양과자 40g을, 임산부와 수유모는 1인당 하루 132g의 영양 강화 식품을 공급받았으며, 이는 5월과 비슷한 규모지만 2017년 들어 최저 수준임.
- WFP의 6월 식량 지원 규모는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40% 감소하였음. 또한 2017년 1월 WFP는 북한 취약계층에게 2,566톤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2월에는 1,504톤, 3월에는 1,760톤, 4월에는 1,900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데 그쳤음.

○ WFP는 국제 사회의 지원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음.

- 한편 WFP는 북한 당국이 지난달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400g의 식량을 배급하였다며, 이는 유엔의 최소 권장량(600g)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였음.

연합뉴스. 2017.07.20. WFP "6월 대북 식량지원 2017년 들어 최저 수준"

WFP, 북한의 최근 일일 식량 배급량을 300g으로 감소하였다고 발표

○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을 400g에서 300g으로 줄였다고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소리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하였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7월 24일 공개한 '7월 18-2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를 통하여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 배급을 400g에서 300g으로 줄였다"고 밝혔음.

- 이는 북한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며 유엔의 1인당 최소 권장량인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임. OCHA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수확량 감소가 배급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 또한 OCHA는 북한 당국이 발표한 자료와 유엔FAO의 인공위성 자료를 분석해 "2017년 이모작 수확량이 가뭄의 영향으로 30%가량 감소하였다"면서 "이는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 정도에 달한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2017.07.25. 유엔 "北, 최근 일일 식량 배급 400→300g 줄여"

FAO,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30% 감소하였다고 발표

○ 북한의 2017년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2016년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등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FAO가 밝혔음.

○ 미국의소리 방송은 FAO가 7월 21일에 발표한 '북한 식량 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 체계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였음.

-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가뭄으로 쌀과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의 피해가 컸음.
- 북한은 지난달 밀과 보리 6만 톤과 감자 25만 톤 등 총 31만 톤의 이모작 작물을 수확하였음. 이는 44만 7,000톤을 수확했던 2016년에 비하여 31% 감소한 규모임.

○ 보고서는 이모작 작물이 북한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추수 전 춘궁기 동안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분석하였음.

- 특히 쌀 등 주요작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음. 식량농업기구의 빈센트 마틴 중국·북한 대표는 "올 가을 쌀 수확량이 전례 없는 규모인 2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 주민의 식량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 마틴 대표는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부들과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고 농부들에게 관개 장비나 농기계 등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뉴스1. 2017.07.21. FAO "北, 이모작 수확량 30% 감소…2001년來 최악 가뭄"

FAO, 2016년 가을 이후 북한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였다고 발표

○ 북한이 2017년 6월에 수확한 곡물 생산량이 2015/2016 양곡연도에 비하여 10% 가량 증가하였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유엔FAO를 인용하여 7월 26일 보도하였음.

○ FAO는 7월 25일 발표한 '세계정보·조기경보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6/2017 양곡연도(2016년 11월-2017년 10월) 곡물 생산량은 596만 톤(도정 전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이는 2016년 가을에 거둬들인 곡물과 2017년 6월에 추수한 이모작 작물 등의 수확량을 합친 것으로, 2015/2016 양곡연도 곡물 생산량(542만 톤)과 비교하면 약 10% 증가한 수치임.
- 특히 북한이 2016년 가을에 추수한 쌀,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작물의 수확량은 544만 톤으로, 2015년보다 약 14% 늘었음. 그중에서도 2016년 가을 쌀 생산량은 254만 톤으로 전년도(195만 톤)보다 30%나 증가하였음.

• 이처럼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FAO는 "여전히 북한이 외부의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45만 8,000톤에 이른다"고 지적하였음.

연합뉴스. 2017.07.26. FAO "北 2016년가을 이후 곡물 생산량 전년보다 10% 증가"

FAO, 북한 위험지수를 세계 하위 15%로 발표

○ FAO가 각국을 상대로 한 위험관리지수 조사에서 북한을 전 세계 하위 15%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FAO는 최근 공개한 '2017 위기지수보고서'에서 북한에 5.6점을 부여, 전체 조사대상 191개국 가운데 30번째로 위험지수가 높은 나라로 선정하였음. 북한은 2016년은 4.4점을 받았음.
- 자유아시아방송은 "보고서는 주민들의 영양 상태, 휴대전화 보급, 폐렴 예방, 부패, 행정부의 효율성 등 다섯 항목에서 북한이 전 세계 최악 10위권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하였다"고 전하였음.

세계일보. 2017.08.02. 유엔식량농업기구 "북한 위험지수 세계 하위 15%"

미국 농무부, 2027년에도 북한 주민의 41%가 식량 부족 상태일 것으로 추정

○ 미국 농무부는 앞으로 10년 뒤인 2027년에도 북한 주민의 41%인 1,080만 명이 식량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하였음.

○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17-2027'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북한 주민의 54% 가량인 1,360만여 명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10년 후인 2027년에도 북한 주민의 41%인 1,080만여 명이 유엔 권장량인 하루 평균 2,100㎉를 섭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농무부는 2016년 같은 보고서에서는 2016년 현재 북한 주민의 40%가 식량 부족을 겪고 있고 10년 후인 2026년에는 전체 주민의 30%가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1년 사이에 전망치는 더 악화되었음.

연합뉴스. 2017.08.18. 美농무부 "北주민 41%, 10년 후에도 식량 부족 "

미국 농무부, 북한의 2017년 쌀 수확량을 160만 톤으로 전망

○ 미국 농무부가 북한의 2017년 쌀 수확량을 160만 톤 규모로 전망하였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하였음.

○ 미국의소리 방송은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서비스가 최근 발표한 '쌀 전망 보고서'(Rice Outlook)를 통하여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하였음. 또한 북한은 2017년 쌀 8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하였음.

- 네이든 차일즈 미 농무부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전망은 8월까지 북한의 날씨, 강우 패턴, 위성사진, 농자재 현황, 관개 상황, 대체 작물 재배 상황, 식량 가격 등을 토대로 나왔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2017.08.24. "美농무부, 北 2017년 쌀수확량 160만t 전망"

WFP의 2017년 7월 대북 식량지원 규모, 상반기 평균 대비 10% 감소

○ 2017년 7월 WFP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 규모는 2017년 상반기 월평균 지원량보다 약 10% 감소한 수준이라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하였음.

○ WFP는 9월 6일 7월 한 달간 북한 탁아소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56만 9,000여 명에게 비타민과 미네랄, 지방 등이 함유된 영양 강화 식품 1,559톤을 지원하였다고 밝혔음. 이 기간 동안 탁아소 어린이 1명당 하루에 66g의 영양 강화 식품과 40g의 영양 과자가, 임산부와 수유모에게는 132g의 영양 강화 식품이 제공되었음.

- 이는 2017년 상반기 북한 취약계층 64만여 명에게 매달 평균 1,733톤의 식량을 지원한 것에 비하면 10% 감소한 규모임. 특히 매달 1백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WFP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

연합뉴스. 2017.09.07. WFP "7월 대북 식량지원, 상반기 평균보다 10% 감소"

유엔 5개 기관, 북한 어린이·여성 영양 부족 상태가 10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추정

○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으로 인한 건강상태가 10년 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9월 15일 유엔 산하 FAO, UNICEF, WFP, WHO, 농업개발국제기금(IFAD) 등 5개 기구는 '2017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백서'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4-2016년 영양실조 상태인 북한주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40%로 과거 2004-2006년(35%)보다 5%p 증가하였다고 밝혔음.

- 영양부족 주민의 수도 과거 2006년 약 840만 명에서 2016년에는 1,030만 명으로 19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었음.

-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의 영양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음. 보고서에 따르면 나이에 비하여 키가 작은 발육부진(만성영양실조)인 5세 미만 북한 유아는 약 50만 명으로 전체 5세 미만 유아 중 28%에 달하였음. 또한 키에 비하여 몸무게가 기준치 이하인 급성영양실조에 해당하는 5세 미만 북한 유아도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또한 임신가능한 15-49세 여성 중 빈혈을 앓고 있는 비율도 32.5%로 10년 전인 31.2%보다 다소 악화되었음. 빈혈을 앓고 있는 젊은 여성수는 약 220만 명으로 10년 전의 200만 명에서 20만 명 늘었음.

매일경제. 2017.09.18. 유엔 구호기구 보고서 "北 어린이·여성 영양부족, 10년전보다 악화"

북한, 2017년 8월까지의 대중 옥수수 수입량은 2016년 대비 46배 증가

○ 2017년 8월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와 밀의 양은 2016년보다 약 46배 증가하였음.

- 중국 해관총서 집계에 따르면 과거 8월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옥수수는 1만 4,057톤으로 2016년 같은 달보다 45.8배 늘어났음. 이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2016년 전체 옥수수 수출량 3,125톤보다 4.5배나 많은 양임.
- 동월 중국의 대북 밀 수출량도 6,001톤을 기록하며 54배 증가하였고, 북한은 홍콩에 이은 중국의 2대 밀 수입국이 되었음. 중국의 대북 쌀 수출은 7,399톤으로 전년보다 15% 늘어났음.
  - 특히 옥수수 수출은 2017년 7월 420배 늘어난 2만 1,006톤을 기록했던 추이가 유지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런 추이가 유지되면 계절적 요인에 따라 9월 중 북한의 대중 옥수수 수입량이 최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음.

연합뉴스. 2017.09.26. 北, 대중 옥수수 수입량 46배 늘어…"식량부족 심각" 관측

미국의소리 방송, 북한의 식량배급량 일일 300g으로 감소하였다고 보도

○ 북한이 국제 사회 제재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대로 배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소리 방송은 9월 27일 WFP 발표를 인용하며,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 식량을 1인당 하루 300g밖에 배급하지 못하였다"고 전하였음. 이는 7월 배급량과 같은 양이며 과거 1분기와 6월 배급량 400g보다는 100g 줄어든 것임. 북한의 7-8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은 북한 당국이 정한 목표량 573g과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인 600g에 미달하는 수치임.

문화일보. 2017.09.27. "北 식량배급 하루 400g → 300g 줄여… 제재 여파"